

겨레와 함께 100년(1908~)

한글 학회

받 음 한국방송공사 사장

말 음 드라마국장

제 목 새 연속극 '차칸남자' 제목 시정 촉구

1. 대한민국 공익 방송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발전의 빕니다.

2.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예고를 통해 새 연속극 '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'의 제목을 보고 대한민국 공영 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드라마 제목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수많은 연속극 제작자와 출연 배우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'차칸남자' 표기를 바르게 쓰자고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. 의식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. 우리 말글을 제대로 쓰고 그 교육와 계도에 앞장서야 할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글 맞춤법을 무시하고 우리말을 파괴하면서까지 연속극을 만든다는 데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3. 이번 연속극 제목의 '차칸남자' 표기는 방송이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'국어기본법'을 위반한 처사입니다. 따라서 한글학회는 새 연속극 제목의 '차칸남자'를 하루빨리 올바른 표기로 바꾸어 방영할 것을 촉구합니다.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온 국민의 힘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로 바로잡을 때까지 온갖 방법을 다하여 싸울 것입니다. 끝.

한글학회 회장



총무부장

김한빛나리

회장

김종택

협조자 학술부장 성기지 

시행 한글 2012-58호 (2012. 09. 06.) 접수

우 110-061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7(신문로1가 58-14) 누리집 www.hangeul.or.kr

전화 (02)738-2236-9 전송 (02)738-2238 누리편지 hangeulzip@gmail.com